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매년 1월 18일~25일

#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서 2장 2절

2022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1월 18일(화) 오후 7시, 유튜브 생중계

YouTube [youtube/6VSzjuSfhZY](https://www.youtube.com/watch?v=6VSzjuSfhZY)



기도자료집

기후위기  
중동의 분쟁과  
극단주의 정치적 혼란  
난민 사회적 약자  
팬데믹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정교회 · 한국천주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세군군국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2년 1월 18-25일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서 2:2)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목차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주제 성구 · 8

주제 소개 · 9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4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 16

예식 순서 · 17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제1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어 당신의 완전한 빛으로 이끄소서 · 28

제2일 겸손한 지도력은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세웁니다 · 30

제3일 세상을 뒤바꾸어 놓은 그리스도의 현존 · 32

제4일 보잘것없고 고통받고 있지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34

제5일 한 분이신 주님의 인도 · 36

제6일 한 분이신 주님 곁에 모여 경배하세 · 38

제7일 친교의 선물 · 40

제8일 분열이라는 익숙한 길을 지나 하나님의 새 길로 · 42

중동교회협의회 · 44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2022년) · 49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54

7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56

---

\*일러두기: 성경은 「공동번역 개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a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탄력적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인 일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위하여 일치 기도 예식서가 제공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의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 주제 성구

### 마태복음 2:1-12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시다.”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 주제 소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 2:2)

마태복음서(2:1-12)에 따르면 유다 하늘에 뜬 별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희망을 상징하고 동방 박사들을 그리고 사실 지상의 모든 이를 참 임금이며 구세주께서 드러나시는 곳으로 이끈다. 이 별은 선물이자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현존의 표지이다. 이는 동방 박사들에게 임금의 탄생을 알리는 표지였다. 이 별빛은 더 큰 빛이시며 모든 이를 일깨우고 성부의 영광과 그 빛의 찬란함으로 이끄는 새로운 빛이신 예수님께 모든 인류를 인도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어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어둠 안으로 들어오신 빛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세상의 어둠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신 빛이시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기까지 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것을 따라갔다.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 안에서 당시 민족들의 다양성의 상징과 동쪽에서 빛나는 별 빛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부르심의 보편성의 표지를 발견해왔다. 또한 새로 태어나신 임금을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열정 안에서 진선미를 향한 온 인류의 갈망을 발견한다. 인류는 한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녀왔다. 때가 차자 거룩한 아기의 탄생에 별이 떠올랐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육화의 신비로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일치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그들은 머나먼 나라에서 길을 떠나오고 다양한 문화를 대표하지만, 새로 탄생한 임금을 뵈고 알고자 하는 동일한 갈망에 사로잡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단순한 행위를 하고자 베들레헴의 작은 집 안에 모인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치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표지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문화와 인종과 언어의 차이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공통점과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공통된 바람을 지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별과 같은 표지가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류를 인도하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께 이끌며, 모든 민족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행위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관습에서 그리스도의 신원에 대한 각기 다른 양상들을 보여 주는 표지들로 이해되어 왔다. 황금은 그분의 왕권을,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몰약은 그분의 예견된 죽음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이 다양한 예물은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이 지닌 특별한 통찰에 대한 표상이 되어 준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며 그들의 보물상자와 마음을 열 때, 모든 이는 이러한 통찰의 예물을 나누며 풍성해진다.

별은 동방에서 떠올랐다(마2:2 참조). 태양은 바로 동쪽에서 떠오르고, “높은 곳에서”(눅1:78)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이 드러난 곳은 바로 중동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중동의 역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갈등과 분쟁이 도드라지고 피로 얼룩져 있으며 불의와 억압으로 어둠에 갇혀 있다. 팔레스타인 나크바(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을 추방) 이후 가장 최근에, 그 지역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일련의 전쟁과 혁명, 그리고 종교극단주의의 출현이 있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는 많은 어두운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의 두 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라는 헤롯의 독단적인 명령(마2:16-18 참조)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의 잔혹함은 중동이 겪었던 긴 역사와 현재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맺은 곳이 바로 중동이었다. 더불어 사도들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려 출발한 곳은 이 동방이었다(행1:8 참조). 중동은 수많은 그리스도교 증인과 순교자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도,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다른 곳을 찾도록 내몰리고 있다. 빛이셨던 아기 예수님께서서 위협을 받으셨던 것처럼 중동 그리스도교의 빛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위협받고 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상징인데, 온 인류가 구해지고 구원 받은 평화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도성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 온갖 무리들이 도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이들을 목살하고 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기도조차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수단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은 임금들의 도시였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서 임금으로 환호 소리 가운데 당당하게 입성하실 도성이었다(눅19:28-44 참조).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이 고귀한 도시에 별로 드러나신 새로 나실 왕을 고대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이 구원자이신 임금의 탄생으로 축복받기보다는 마치 오늘날처럼 격동의 시기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오늘날 중동에는 그 백성의 길을 함께해 줄 하늘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하다. 베들레헴의 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연민을 보

이시는 표지이다. 이것은 상황이 변하고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주님께서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시편121:4). 그분께서는 백성 곁에서 걸으시며, 그들이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면 그들을 지켜 주신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당신 백성을 언제나 돌보시고 역사와 삶의 복잡한 길 위에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올해 기도 주간에,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동방에 떠오른 별을 주제로 삼은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서방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기념하지만, 더 오래된 축제이자, 아직도 동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축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베들레헴과 요르단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계시되었던 주현절이다. 이렇게 하나님 현현(계시)에 주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 자매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보물인 것이다.

별은 헤롯 왕이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곳인 예루살렘의 혼란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무고한 이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위협당하며, 젊은 가족들은 헤롯과 아우구스투스와의 같은 폭군을 피해 달아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신다는 표지를 찾는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신 임금, 온유와 평화와 사랑의 임금을 찾는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길로 인도하는 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한 별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세상에서 희망의 표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동반하시는 하나님 현존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 길을 비추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만백성에게 드러나시도록 하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안의 분열이 그리스도인 증언의 빛을 어둡게 하고 그 길을 가려,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여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와 예물을 나누고자 보물상자를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에 바라시는 일치의 표지가 된다.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과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는 구원자께 향하는 길로 인도할 빛을 영원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이 자료집을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와 약자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실패는 어둠을 비출 빛에 대한 세계적인 필요를 강조했다. 이전 년 전 동방에서, 중동에서 떠오른 이 별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구유로 부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곳으로, 우리 마음의 회개로 우리를 이끈다.

동방 박사들은 구세주를 만나 함께 그분께 경배드리고 나서 꿈에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간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나누는 친교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따라 우리의 삶, 교회,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길을 따라 여정을 떠나는 것은 저마다의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회개와 쇄신을 이루도록 하는 초대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길이고,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위치에 고정된 별자리이자, 빛나는 행성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복음에 봉사하는 데에는 인간 존엄,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존엄을 수호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이들과 부대끼는 가운데 교회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청한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난민들을 환대하고, 짐을 진 이들의 짐을 덜어 주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미래, 즉 온 인류가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일하라는 요청이다. 교회들간의 새로운 길은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지니고 자기를 희생하며 찾아나서는 가시적인 일치의 길이다. 훗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고전 15:28).

##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고자 공동으로 임명한 국제준비위원회는 현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때문에 서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상으로 이 자료집을 준비해야 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둔 중동교회협의회에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주제 선정과 초안 준비를 맡겼다. 중동교회협의회가 정한 주제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2:2)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요즈음,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빛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국제 보건 위기 속에서 불의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상습적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의 거대한 폭발 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지역 교회 일치 공동체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이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중동과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더 큰 일치가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를 살아갈 모든 이의 더 존귀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기를 기도한다.

##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 Revd. Father Martin Browne, OSB - 성 베네딕도회 글렌스탈 수도원(아일랜드)
- Ms. Anne-Noëlle Clément - 그리스도인 일치 단체[Unité Chrétienne(프랑스)]
- Revd. Anthony Currer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바티칸)
- Dr. Ani Ghazaryan Drissi -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사무국 프로그램 총괄(스위스)
- Revd. Dr Jochen Wagner - 독일그리스도교공의회연구회[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in Deutschland(독일)]
- Dr. Hanne Lamparter - 독일 루터교회(독일)
- Sr. Leticia Candelario Lopez - 하나님 말씀 선교회(싱가포르)
- Revd. Dr Odair Pedroso Mateus -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 위원장(스위스)
- Revd. Father James Puglisi - 속죄의 프란치스코 형제회 일치 센터(이탈리아/미국)
- Revd. Dr Mikie Roberts - 세계교회협의회 영성 생활 프로그램 총괄(스위스)
- Dr. Clare Watkins - 로햄턴 대학교(영국)

## 중동교회협의회 참석자

- Revd. Father Dr Boulos Wehbe - 안티오키아 그리스 정교회(레바논)
- Revd. Dr. Rima Nasrallah - 복음주의 교회(레바논)
- Revd. Father Dr. Roger Akhrass - 안티오키아 시리아 정교회(시리아)
- Dr. John Daniel - 복음주의 나일 지역 총회(이집트)
- Sr. Emily Tannous - 마로니타 교회(레바논)
- Revd. Father Gabriel Hachem - 안티오키아의 그리스 멜키트 가톨릭교회(레바논)

## 예식 소개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에 다양한 전통과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모인다. 올해의 자료와 기도 예식은 중동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하였다. 성경 본문과 예식문은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새로 나신 임금님을 뵈러 간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 특히 2절의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에서 영감을 받아 선택하였다.

몇몇 제안하는 음악은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회중 가운데 중동의 그리스도인 참석자가 있다면, 그들의 모국어로 이 성가들을 선창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근래에는 예식을 위한 전자자료의 사용이 증가하였기에, 몇몇 음악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링크도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올해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적절한 다른 성가와 노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빛 나눔’이라는 제목의 예식을 위하여 몇 가지 물품들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로, 밤하늘을 떠올리도록 짙은 파란색의 천 자락을 적절히 걸어 둔다. 둘째로는 그 천 자락에 거대한 별을 달 것이다. 셋째로는 참석자들을 위한 작은 종이별들을 준비한다. 상황에 따라 회중 전체가, 또는 예식에 참여한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의 대표자들의 하늘의 임금님께 바치는 예물로 이 종이별들을 [천으로 상징한] **하늘에 달도록** 한다.

예식 가운데 독서자에게 맡겨진 부분은 여러 명이 함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인도자**에게 주어진 예문도 성직자들이나 예식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통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며 **파견과 강복**을 함께 선포할 수 있다.

## 예식 순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 2:2)

- + 인도자
- ◎ 회중
- 맡은이

### 시작

(성가를 부르거나 연주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행렬로 입장한다.)

### 예식으로의 초대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자매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각지의 믿는 이들과 하나 되어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중동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한 예식 자료를 사용합니다. 올해의 주



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새로 나신 임금님을 뵈러 간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 특히 2절의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방에서 보인 이 별에 주목하며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물며, 모든 병든 이, 고통받는 이, 소외된 이, 난민, 쫓겨난 이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백성을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도록 초대하셨으니, 영광 받으소서. 저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았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경배하고자 모여왔나이다. 오늘 저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며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머무시기를 청하나이다.

◎ 세계 각지에서 모여 온 저희가 남녀노소 모두 하나 되어 천상의 임금 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나이다. 아멘.

## 성가

### 찬미기도와 고백

+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빛을 만드셨으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거룩한 시간, 날, 해를 알리는 표지들을 마련하셨나이다. 창공을 별들로 가득 채워

두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지 천상이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늘이 주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선포하나이다.

**◎ 주님, 영광 받으소서!**

+ 저희가 주님을 거스른대도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히고 저희의 빛이자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셨으니 찬양 받으소서. 성자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온 인류의 빛이었나이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나이다.

**◎ 주님, 찬양 받으소서!**

+ 오 주님, 당신 성령의 힘을 통하여 저희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 길을 밝히시고 거짓과 의심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만남과 화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경배합니다!**

+ 오 주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어 이 빛을 저희 주변과 여러 교회와 다양한 문화 안에 비추도록 하시고, 유일한 참 임금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저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주님, 감사합니다!**

+ 만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저희는 자주 어둠을 찾사오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빛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죄를 고백하며 말씀드립니다.

◎ 저희가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좋은 피조물을 파괴하고, 소비주의적 행동으로 그 자원들을 낭비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와 토양을 더럽혔으며 많은 종들의 멸종을 야기시켰습니다.

(잠시 침묵)

◎ 저희는 형제자매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희의 욕구와 욕망이 정의를 향한 헌신보다 우선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로 간에 벽을 쌓고 다른 이들을 향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잠시 침묵)

◎ 저희는 민족, 종교,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고, 우리가 일으킨 전쟁에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잠시 침묵)

+ 전능하신 하나님,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때가 차자 저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 희망의 횃불로 빛나게 하소서.

(잠시 침묵)

+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 저희가 한목소리로 찬미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찬송

### 시편 제8편 (화답)

○ 주님, 우리의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늘 위에 주님 영광 높사옵니다.

◎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드는 자와 맞서는 자를 없애시려

당신은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요새를 지으셨나이다.

○ 우러러 주님 손가락으로 빛으신 하늘과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 주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이옵니다.

◎ 주님, 우리의 주님.  
온 땅에 주님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성가

제1독서

이사야서 9:1-6

성가

제2독서

에베소서 5:8-14

복음환호송

(노래)

## 복음

마태복음서 2:1-12

## 설교

(설교 후 잠시 침묵 또는 성가)

###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동방 교회의 전통에 따라)

+ 한 분이신 하나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그리스도의 빛 나눔

(밤하늘을 떠올리도록 걸어 둔 짙은 파란색의 천 자락을 걸어두고 그 위에 거대한 별을 달아둔다. 참석자들을 위한 종이별들을 준비하고,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나와 천 자락에 별을 달도록 한다.)

- + 별은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별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별 아래 모여 하늘에 저마다의 별을 달며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하여 우리의 예물과 기도를 하나로 모읍니다.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삶이 찬란한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를 청합시다.

## 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앞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문화와 고장에서 가져온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예식과 전통을 지닌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특히 폭력과 억압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보물들을 지켜 주소서.

◎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주님의 유년 시절은 독재자 헤롯의 명령으로 폭력과 학살로 얼룩졌습니다. 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그 여파가 체감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들 안에 일치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연대를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소서.  
억압받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멈추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저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찾는 것처럼, 저희가 독재와 억압의 지배에 맞서 함께 일어서도록 도와주소서.

◎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 성가정(聖家庭)은 광야를 지나는 이주를 체험했고 이집트 땅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난민과 쫓겨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향 땅을 떠나온 이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도록 하시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전할 환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거룩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조화를 이루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이들의 길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겸손과 인내를 주소서.

◎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따르고 증언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세상이 당신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동방 박사들이 거룩한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아기를 바라보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 주님의 기도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성가

### 파견과 축복기도

(엡 5-6장 참조)

+ 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맙시다.

◎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를 비추게 하소서.

+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와 믿음과 사랑이 온 공동체에 내리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 파견 성가

## 8일간의 성경묵상과 기도

---

### 제1일

####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마 2:2)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어 당신의 완전한 빛으로 이끄소서

- 속 4:1-7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 시 139:1-10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 딤후 1:7-10 이 은총은 … 이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 요 16:7-14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 묵상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저 멀리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습니다. 악 속에서 우리는 선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선을 찾지만, 종종 우리의 나약함에 압도당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바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라고는, 그리고 주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군센 영광 사랑**입니다.

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빛의 길을 향하여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인류의 어둠 속에서 동방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어둠의 심연을 뚫고 들어오는 빛을 봅니다. 이 별빛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만 빛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나며 역사의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이후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 감도(感導)된 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며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파란만장한 역사와 변화하는 환경에도 부활하신 분께서는 모든 이를 이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는 횃불처럼 역사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어둠을 이기시며 계속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어둠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열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도록 만듭니다.

## 기도

주 하나님,

저희보다 앞장서 가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희 길을 비추소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저희 안에 머무르소서. 저희를 이끄시어 위대한 빛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작은 구유를 저희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해 주소서.

빛의 창조주시여,

지지 않는 별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순례의 횃불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분열을 치유해 주시고 빛에 저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 주님 안에서 저희가 일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2일

###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마 2:2)

겸손한 지도력은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세웁니다.

- 렘 23:1-6 그 짝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리라.
- 시 46 그분께서 세상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네.
- 빌 2:5-11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 습니다.
- 마 20:20-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 묵상

예레미야는 백성을 갈라놓고 흩어버린 이스라엘 임금들의 형편없는 지도력 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민족들을 파멸시키고 백성들이 그 땅을 떠 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공 정과 정의를 이루고” 주님의 양 떼를 모을 목자이자 임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세상은 훌륭한 지도력을 갈망하고, 이러한 갈망을 실현시켜 줄 사람 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임금이나 지도자의 모범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세 상과 교회를 섬기는 왕직의 길을 따르라고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수 고 갈라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 는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그분의 법은 자기 잇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음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며 섬기는 법을 아시는 종을 그분 안에서 만납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분이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이와 똑같이 하라고 부름받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가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민족들이 우짚으며 나라들이 동요**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을 흩어지거나 갈라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안의 수많은 분열은 지위, 권력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욕망으로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지도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닦아가면 갈수록, 세상과 교회의 분열은 더욱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의 안녕을 위한 공정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우리는 목자이신 임금님을 겸손하게 증언하며, 그분 현존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게 됩니다.

## 기도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니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흔히 세상이 모범으로 삼는 리더십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권세 넘치는 궁궐 안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구유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온유하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자신을 비우고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3일

###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마 2:3)

세상을 뒤바꾸어 놓은 그리스도의 현존

- 느 4:12-45 우리는 ...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 시 2:1-10 어찌하여 민족들이 ... 꾸미는가?
- 살후 2:13-3:5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실 것입니다.
- 마 2:1-5 헤롯 왕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 묵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세상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국가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주님께서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어 권력과 지위에 대한 야망이 따르는 불의와 억압을 비난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음을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가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엄하기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현존은 바로 큰 동요를 일으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공동선은 무시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희망의 빛을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현실이 되도록 건설적인 활동을 하는 데

에 전념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식이, 정의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과 같지 않은 경우들을 생각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일할 때에 우리의 노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불안, 사회적 빈곤, 구조적 차별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며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른 이들, 특히 고통, 중오, 폭력, 아픔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 기도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희망의 별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절망과 환멸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손을 잡아 주시어 저희가 일상의 삶에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 버리도록 하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저희 마음의 불을 지피시어 사랑의 온기로 저희를 감싸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주님, 주님께로 저희를 들어 높이시어 저희의 삶이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제4일

### “유다 땅 베들레헴아...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마 2:6)

보잘것없고 고통받고 있지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미 5:1-4, 6-7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 시 23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 뱀전 2:21-25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 눅 12:32-40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 묵상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을의 한 평범한 여인의 태중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드러나지 않고 소박하게 자신의 인성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밭의 낱알이, 반죽 속의 누룩이, 우리 눈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셨고, 그 빛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에프라타(Ephrata)에서 임금,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보호자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위대한 유다 지파들 가운데 미미한 존재였지만, 모든 목자 중의 목자, 모든 임금 중의 임금이신 분이 태어나 위대해졌습니다.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생명의 빵을 가져다주는 교회를 은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인 교회는 약한 이, 힘없는 이, 보잘것없는 이들이 여전히 환

대받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낱알들이 모여 수확이 됩니다. 하나가 된 누룩은 큰 힘이 됩니다. 응집된 빛줄기는 길잡이가 되는 빛이 됩니다.

정치적 혼란, 점점 커지는 탐욕의 문화, 세상 권력의 남용이 있는 가운데에서, 중동에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고통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폭력과 불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그들과 함께 걸으며, 모든 이를 한 울타리 안으로 모아 사랑이 넘치는 목자의 현존의 표징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그들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겸손의 모범을 찾고, 그리스도로부터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무리가 되라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 안에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고통받으신 어린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들은 희망을 굳게 믿으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기도

착한 목자시여,  
작은 양 떼들이 흩어져 성령께 큰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저희의 미약한 노력과 더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본받은 지혜로운 목자들을 보내시어, 이들이 분열의 잘못을 깨닫고, 정의와 거룩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당신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바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5일

###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갔다”(마 2:9)

한 분이신 주님의 인도

- 출 13:17-14:4 주님께서서는 …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셨다.
- 시 121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오?
- 계 22:5-9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 2:7-10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갔다.

## 묵상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을 보호 하시며 밤낮으로 돌보시는지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해 줍니다. 그 길은 언제나 곧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또 다른 경우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이끌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안에서, 우리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밭을 헐다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빛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당신 백성을 그들 앞에 놓인 길로 이끌고, 그들에게 계약을 일깨우고자 보내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빛냅니다.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을 이끄시는 빛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이시며, 신적 생명의 원천이시

고,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맺으십니다.

서로가 이루는 일치 그리고 하나님과 이루는 더욱 깊은 일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일치를 이루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지만, 성경에서 전하는 이 근본 메시지,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아무리 실패하고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쉽게 잊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별빛으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 주시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거룩하신 아기의 진리와 그분 안에서 만물이 일치하고 화해하라는 부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어둠과 비극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 기도

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별을 보내 주시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더 큰 희망을 품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저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해 주소서. 그 길이 아무리 낯설다 하더라도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가르쳐 주시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게 하소서. 저희가 성령께 눈을 뜨고 신앙으로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6일

#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 2:11)

한 분이신 주님 곁에 모여 경배하세

- 출 3:1-6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 시편 84      만군의 주님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 계 4:8-11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 마 28:16-20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 묵상

머나먼 고장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 주신 이러한 계시에 우리는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불타는 떨기를 보며 하나님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스물네 명의 원로는 왕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현존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라보고 놀라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뵈니까? 우리는 놀랍니까? 우리는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현존 앞에 눈뜬장님이 됩니까? 우리가 먼

저 알아채지 않으면 어떻게 참으로 엮드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는 뒤엎혀 있는 불화만을 보고, 한 분이신 주님께서서 우리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우리를 일치로 이끄시는 한 분이신 성령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만하여 우리 자신의 법칙과 인간의 전통만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화된 한 백성으로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공동의 신앙을 지니고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랑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활기를 찾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들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 한 백성으로 그분께 경배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에게로 이끄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한 분이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만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미래는 일치와 사랑의 미래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라는 단일한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눈먼 이들에게 구세주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주셨으니, 저희도 뉘우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 눈을 가린 비늘을 거두어 주시어 주님 앞에 엮드려 경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슬픔과 죄의 구렁에서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소서. 주님의 첫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저희도 한 마음 한 정신으로 주님의 빛에 인도되어 같은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어, 성령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저희가 다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희 곁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7일

#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 2:11)

친교의 선물

- 호 6:1-6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 시 100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 행 3:1-10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 마 6:19-21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 묵상

빵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우리 여정에서 아기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 새로 태어나신 임금께 황금과 향유와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역사 속 분열, 규칙과 예식에 대한 완고한 고집, 세속적 문제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일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오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나 번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가난을 통해 당신의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동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바라십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갈라진 우리

자매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자비의 행동이 넘쳐나는 마음 그리고 진정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그분께 드릴 예물로 준비합시다. 옳드려 경배하려면, 우리를 서로 갈라놓은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섬기는 분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부서지고 상처받은 모든 것을 되살리고 치유하며 화해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당신의 교회에 일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친교를 키워나가며 서로 다른 전통들이 받은 은총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 기도

오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들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공현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둘러싼 고통, 저희의 분열로 발생한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지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현존으로 거룩해졌던 자리인 중동의 상황이 오늘날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허락하소서. 저희가 머나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과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에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자매형제의 사랑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더욱 풍성한 친교를 이루도록 서로의 선물을 나눌 의지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소서. 저희에게 은총과 축복을 한없이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8일

###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마 2:12)

분열이라는 익숙한 길을 지나 하나님의 새 길로

- 렘 31:31-34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 새 계약을 맺겠다.
- 시편 16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엡 4:20-23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 마 11:25-30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나이다.

## 묵상

천문학과 항해술에 능통하였던 동박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무엇을 생각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을 비추었던 바로 그 빛이 다른 길,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익숙한 방식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한 방식이나 길이 막혀 버리면, 우리는 여정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또 다른 길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당신의 계약을 새롭게 하시고, 막다른 벽을 만날 때 느끼는 좌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 방식과 길이

가로막혔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활동에 기꺼이 마음을 연다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며 빛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새로워진 열정으로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환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익숙한 길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걸으며 순례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식별과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와 화해의 때입니다.

## 기도

은총의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한 길만을 알고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길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 저희는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의 하나님이시며, 저희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 지혜는 저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마련하신 창의적인 길이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지 못하더라도 저희를 더욱 멋진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언제나 찾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중동교회협의회\*

---

중동교회협의회(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MECC)는 성경과 교회 전승에 따라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을 나누는 교회들의 협력체이다. 1974년에 설립된 중동교회협의회는 근동교회협의회(Near East Council of Churches, 1962년 설립)를 이어받았다. 지역 교회 일치 기구인 중동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생활하셨으며 돌아가셨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증언을 위하여 교회들을 한데 모은다. 지리적으로 중동교회협의회는 이란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걸프 지역,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이집트에 이른다. 중동교회협의회는 애초에 세 교회 가족들 곧 복음교회, 중동정교회, 동방정교회로 결성되었고, 1990년에 가톨릭 교회가 네 번째 가족으로 합류하였다. 이 네 교회가 합심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고 일치의 바람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사명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현존의 가시적 표현인 중동교회협의회는 사명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현존과 증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관계에 관련된 사안들에서 중동 지역 교회들이 그들의 전망과 관점과 태도를 하나로 모아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중동교회협의회는 사명은 다음과 같다.

- 장벽과 편견을 없애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공통된 증언을 위하여 교회

---

\* 이 본문은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의 원문을 작성한 중동교회협의회는 단독 권위와 책임 아래서만 이루어집니다.

들 사이에 다리 놓기. 중동교회협의회는 교회 일치 기구로서 중동 지역의 대다수 교회들을 결집시켜 그들에게 모임, 기도, 성찰, 분석의 자리는 물론 한목소리로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증언할 공간을 제공한다.

- 지역 내 다른 종교인, 특히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리 놓기. 중동교회협의회는 인류의 선익을 위하여 민족들 간의 우정과 평화를 북돋우고 굳건히 하고자 무슬림과의 대화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 중동과 기타 그리스도교계 지역 사이에 다리 놓기. 중동교회협의회는 중동 지역 내 교회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중동의 교회 일치 현황과 도전 과제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적, 지역적, 국지적 도전이 산재함에도 중동교회협의회는 중동에서 신학적 성찰과 교회 일치를 위한 성찰을 증진하는 활동을 확고하게 이어나가고자 한다. 중동교회협의회는 주로 교회 일치 교육과 의사소통과 관계망의 강화를 통하여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동교회협의회는 대화를 증진하고 정의로운 평화 계획들을 발전시키며, 그 밖에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권리를 누리도록 도움으로써 교회 일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펴 나가고 있다. 중동교회협의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신뢰 덕택에 회원 교회들과 교회 일치와 국제 협력 기구들의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그 활동을 이어나간다. 중동교회협의회는 인간 존엄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데에 협력 기구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중동교회협의회는 교회 일치의 지역적 반경을 확실히 하려는 중대한 결심으로, 교회들의 소리가 모든 지역과 국제 토론의 장에서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인다. 중동교회협의회는 대화 협력체들과 함께 '시민 협력자 관계'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계획들에 참여하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지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적 사명과 증언과 건설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봉사한다. 이러한 계획들 덕분에 이념과 교리적 차이를 뛰어넘는 전망과 가치의 문화 간 교류의 길이 마련된다.

더 나아가 중동 교회들은 교회 일치적 삶과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 지역 역사와 종교와 문화 전통, 일련의 경제 위기, 끊임없이 이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정학적 권력 다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 지역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나크바 사건 이후로, 레바논,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집트 등 이 지역 내 각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분쟁과 정치적 혼란은 그리스도인의 이주 물결을 가속화시켰다. 그럼으로써 신자 수는 안타까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중동 지역의 오랜 그리스도교 역사는 정체와 감소의 국면을 맞이하였음에도 동시에 회복과 재생의 국면도 보여 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중동의 그리스도인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 활기를 불어넣는 증언과 영성 생활의 질적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둔다. 이러한 두 시각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스도인 존재는 한 사명에 봉사할 때에만 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주요 사명은 자신들의 시민 동반자들과 함께 인도적으로든 교회 일치적으로든 종교간 대화로든 다양성의 수호를 증언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그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공통된 도전들 가운데서도 회복의 힘이 있음을 증언하는 능력으로 구체화된다.

21세기는 중동 역사상 또 하나의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몇몇 국가에서 정부 체제의 붕괴에 따른 사회 전체 차원의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 이 지역은 끊임없는 무력 충돌과 약화된 경제 회복력과 사회 구조, 강제 인구 이동, 가치 체계의 무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중동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언과 존재는 이처럼 장기화된 위기와 갈등에 크게 영향받았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 일치 협력 기구들과 다른 인도주의 기구들과 개발 기구들이 현 상황과 그리스도인 인구의 가파른 감소의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서방의 중동에 대한 여러 개입은 동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서방의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개입은 여태껏 중동 교회들과 사람들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교회, 개인, 정부는 그리스도인 증언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그리스도교의 미래 자체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교회와 그 제도들의 역할에 대해 재고해 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민 동반자 관계’ 모델, 곧 무슬림과 유대인과의 공존과 다양성의 모델을 이 지역과 세계화된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중동교회협의회는 새롭고 정의로우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중동을 위하여 어떤 예언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도전에 맞서기 위하여

중동교회협의회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활동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1. 젊은이, 사회 소외층, 폭력의 희생자들의 핵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의 직무를 변화시킬 교회적 신학적 쇄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기. 이 지역에서 만들어 갈 자기 삶의 미래를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젊은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2. 만연한 정체성 양극화 앞에서 공존, 환대, 종교 다양성을 위한 기존 모델의 폭을 넓히기. 이와 관련하여 중동교회협의회는 이 지역 난민의 절망적인 난관에 응답하고 자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중동교회협의회는 모든 이를 위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일한다. 중동교회협의회는 특히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항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의 부재, 예루살렘과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서서히 끊임없이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추방과 주변국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외와 차별에 대하여 염려한다. 이 불의한 대우는 강제 이주의 세월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존엄과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동교회협의회는 팔레스타인 난민국(Department for Services for Palestinian Refugees: DSPR)은 언제나 필요하다.

앞을 가로막는 기존의 온갖 도전에도 중동교회협의회를 존속시키기로 한 많은 교회 수장들의 결정에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협력과 응집을 증진하려 애쓰는 그리스도인 신학자들과 이 지역의 교회들과 공동체 지도자들의 동조와 지원에 힘을 얻어, 중동교회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그리스도의 빛이 중동을 더욱 환하게 비추기를 늘 기도한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

1968-2022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이탈리아 바리에서 준비모임)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몽세라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벤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머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샹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에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 1999년 “하나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0년 “하나님께서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2007년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 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벧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 2017년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고후 5:14~20 참조)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 2018년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출 15:6)  
(카리브 지역에서 초안 준비, 바하마 나소에서 준비 모임)
- 2019년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 16:18-20)  
(인도네시아에서 초안 준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준비 모임)
- 2020년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행 28:2)  
(몰타에서 초안 준비 - 몰타 라바트에서 준비 모임)
- 2021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요 15:5~9)  
(그랑상 공동체에서 초안 준비 - 스위스 아루즈에서 준비 모임)
- 2022년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 2:2)  
(레바논 중동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 온라인 준비 모임)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 1740년경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테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냐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프랑스 리옹)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7기)

###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2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줌 온라인 강의
- 수강비: 10만원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2022년 2월 중 공지 예정: [www.fno.or.kr](http://www.fno.or.kr)

### 강사(\*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종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윤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태영 신부	로마 교황청립 안토니오 대학교, 작은형제회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장영주 사관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커리큘럼** (\*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 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b>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b>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
<b>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b>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b>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b>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 종합토론, 수료식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홈페이지 · [www.fno.or.kr](http://www.fno.or.kr)

출판협조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22, *We saw the star in the East, and we came to worship him (Mt 2:2)*,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http://www.christianunity.va/content/unitacristiani/it/settimana-di-preghiera-per-l-unita/settimana-di-preghiera-per-l-unita-dei-cristiani-20220.html>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